

배우 박해수 “제 생각과 정반대 삶 살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1년만에 글로벌스타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으로 또 인기

배우 박해수(41)가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17년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였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신원호 PD가 연출하는 작품에서 생소한 배우가 주인공을 연기한다고 해서 당시 꽤나 화제가 됐다. 공연계에선 이미 알려진 만큼 알려진 배우였지만, 그래도 그는 무명 배우에 가까웠다. 2015년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지란’ 역으로 인상깊은 연기를 선보였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시청자는 많지 않았다. 박해수는 서서히 주목받는 배우였지 스타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나왔고, 그는 단박에 스타가 됐다.

그것도 그냥 스타 배우가 아니라 글로벌 스타. 이 모든 게 딱 1년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해수는 지난 1년 간 미국에서 열린 각종 시상식에 대부분 참석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열린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은 그 마지막 여정이었다. TV아카데미로 불리며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이 시상식에서 그는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이 부문에 아시아 국적 배우가 후보에 오른 건 최초였다. 그 사이 박해수가 출연한 또 다른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공개돼 또 한 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박해수를 만났다. 그에게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물었다. 그러자 이런 말로 입을 열었다. “전 대학로 소극장에서 관객 1명을 두고 연기한 적도 있던 배우였어요. 아직은 감사하고 신기하기만 해요. 몇 년 더 지나봐야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해수는 자신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MBTI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은 E형(외향적)이 아

니라 I형(내향적)이라고 했다. 성격상 이런 방식으로 배우 생활을 해나갈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그는 “난 깊게 파려고 했다.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깊게 파 들어가기도는 넓게 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전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단 이 길로 계속 가다보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박해수는 아마도 넷플릭스가 배급하는 영화·드라마에 가장 많이 출연한 한국 배우일 것이다. 우선 ‘오징어 게임’과 ‘종이의 집-공동경계구역’ ‘수리남’이 있고, 영화 ‘야차’ ‘사냥의 시간’도 있다. 이 모든 작품이 코로나 사태 이후 공개됐다. 이중 일부 작품은 넷플릭스가 기획한 작품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해 넷플릭스로 넘어온 것들도 있다. 한 배우가 약 2년 간 넷플릭스가 선보인 각기 다른 영화·드라마 5편에 나오는 건 이례적이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막힌 우연이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K-콘텐츠의) 어떤 연결고리나 통로가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는 최근 한 선배 배우가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박해수는 그 선배에게 “지금 찾아온 이 큰 물살에 올라타는 게 맞는 것인지”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선배 배우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물살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며, 올라탈 수 있을 때 올라타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라고 조언해줬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그 분이 저한테 결국은 고래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고래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고요. 지금의 전 잘 파악해요. 멀치 같죠. 균형을 잘 잡아보려고 합니다.” 박해수



는 이번엔 찾아온 기회를 통해 앞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미국 등에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짬짬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배우로서 존재감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박해수에게 이번 에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물었다. 그는 “쟁쟁한 후보들이 워낙 많아서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상식 전날 어머니와

통화한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께 수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남자가 그런 욕심도 없어서 어찌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수상 소감을 작성하라고 하셨어요.(웃음) 그러면서 수상 소감을 어머니께서 직접 알려 주셨어요. 전 그걸 받아적어서 옷 안주머니에 넣고 시상식에 갔어요. 어머니가 불러준 멘트엔 ‘감사하다’는 말이 15번 정도 들어가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상을 받으셔야 해요.(웃음)”



이혜리·이준영, 어색함 속 묘한 설렘... ‘일당백집사’

그들 ‘김스테이’ 출신 배우 이혜리와 배우 이준영이 신박한 케미스트리를 펼친다.

MBC TV 새 수목드라마 ‘일당백집사’(연출 심소연·박선영, 극본 이선혜) 측은 21일 정례지도사 백동주(이혜리 분)와 일당백 김집사(이준영 분)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아직 어색한 백동주, 김집사의 모습이 묘한 설렘을 자아내고 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진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를 만났더라는 문구는 이들 관계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각자의 목적을 안고 만난 두 사람이 어떤 신박한 팀플레이로 생사 초월 프로젝트를 완수할지 기대감을 높인다.

이혜리는 극중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묘한 능력을 가진 장례지도사 ‘백동주’를 맡는다. 고인의 마지막 소원을 풀지 않으면 운빨 ‘1도’ 없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인물. 이준영은 생활 심리학 서비스 ‘일당백’의 에이스 ‘김집사’로 분한다. 세상 하찮은 일도 고객 이 원하면 어디든 달려가 ‘무엇든 도와주는’ 일당백 집사다.

제작진은 “생사를 초월해 ‘무엇이든’ 들어주고, 도와주는 백동주와 김집사의 요양한 팀플레이가 유쾌하면서도 파스하게 그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당백집사’는 고인의 청을 들어주는 장례지도사 백동주와 생활 서비스 업체 일당백 김집사의 상부상조 프로젝트를 그린다. 내달 19일 첫 방송.

오영수 “대학로에서 배우로 여물어...세계적 인지도 높여야”



‘우영우’ 배우 주종혁 ‘코리안 페스티벌’ MC

최근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권모술수’로 알려진 배우 주종혁이 ‘코리안 페스티벌’ MC로 나선다.

21일 KBS ‘2022 코리안 페스티벌-120년의 꿈’ 측은 “주종혁이 ‘코리안 페스티벌’의 MC로 출연을 확정해 아나운서 박소현과 공동 MC로 호흡을 맞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KBS 한국방송이 주관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은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 공연이다.

대한민국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한인 이민 역사 120년의 회로악락을 담은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전망이다.

한편 ‘코리안 페스티벌’ 무료 방청 티켓은 이날 오후 2시부터 K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내달 4일 오후 7시 30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녹화 진행되며 방청 티켓 소지자에 한해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본 방송은 내달 9일 오후 10시 40분 KBS 2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대학로 무대에 섰습니다. 많은 작품을 했죠. 이 곳에서 설익은 배우가 여부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벽에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늘 그 앞을 지나가며 생각했죠. 삶 자체에 대해, 예술적으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요.”

한국 공연관광 홍보대사인 배우 오영수가 21일 서울 대학로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SKON에서 ‘웰컴 대학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로에 얽힌 추억과 홍보대사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BTS, 빌보드차트 그룹·개별로 장기집권

엔솔리지 앨범 ‘프루프’, 14주 연속 차트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그룹과 개별 활동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장기 집권하고 있다.

빌보드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차트(9월24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엔솔리지 앨범 ‘프루프’는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90위를 차지하며 14주 연속 차트인했다.

또한, ‘프루프’ 타이틀곡 ‘Yet To Come’(The Most Beautiful Moment)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5위로 재진입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15일 오후 6시(한국

‘웰컴 대학로’ 기자간담회

다.

오영수는 “대학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자랑분이 되면서 1970년대부터 대학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50년 가까이 이 곳에서 공연 예술 활동을 하며, 대학로가 국제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생각을 해오던 차에 정부가 홍보대사를 제안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미상 무대가 끝난 후 뒤돌아 ‘쥬기춤’을 결집한 파격적 댄스를 선보인 것과 관련, “세계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감화가 돼 흔들렸던 것 같다”며 “춤을 따로 배운 것은 아니고, 연기 생활을 하며 무대 위에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오영수는 “영국(웨스트엔드)에 가면 500년이 넘는 셰익스피어가 아직 공연장에서 머무르고 있고, 미국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살아 숨쉬다”며 “우리에게는 공연예술문화가 살아숨쉬

는 대학로가 있지만 세계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제 대학로가 공연예술의 메카로 인식될 때가 왔다”며 “이번에 해외를 다니며 ‘우리 콘텐츠와 문화가 세계화 됐고, 이제 세계화된 차원을 넘어 어떤 면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학로도(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와) 버금가는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됐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학로는 약 135개의 공연장이 모인 소극장 밀집 지역이다. 20~30개 극장이 있는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와 비교해도 세계 최대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2 웰컴 대학로’는 오는 24일 개막해 10월 30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연비별 공연, 전통공연, 뮤지컬, 연극 등 한국의 우수한 공연 작품을 대학로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50여 편의 공연이 참여한다.



132위, ‘버터(Butter)’가 196위에 올랐다.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83위,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92위, ‘버터(Butter)’가 134위에 자리했다. 방탄소년단은 개별 활동에서도 호성적을 이어 갔다. 멤버 정국과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41위로 12주 연속 차트인했다.



미래소년, 신보 개인 콘셉트 포토 공개... ‘청량 비주얼’

그들 미래소년의 개인 콘셉트 포토가 베일을 벗었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4번째 미니 앨범 ‘아워턴(Ourtum - MIRAE 4th Mini Album)’의 개인 콘셉트 포토를 게재했다.

지난 19일 박시영, 20일 유도현까지 총 2종의 포토가 공개됐다.

푸른 배경 속에서 멤버 박시영과 유도현은 청량한 비주얼을 과시했다.

박시영은 머리 위로 빨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정면을 응시하는가 하면, 유도현은 바다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크한 의상을 입은 두번째 콘셉트 포토에서 박시영과 유도현은 강렬한 눈빛을 선사하며 감각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이미지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래소년의 ‘아워턴’은 멤버들이 생각하는 ‘소년다움’에 맞춰 트렌디하고 청량감을 더한 사운드와 자유롭게 유행하는 미래소년표 ‘코스믹 감성’을 버무렸다.

타이틀 곡 ‘드립 앤 드롭(Drip N’ Drop)’은 UK 개러지, 트랩 장르의 댄스 곡으로, 멤버 카엘이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부드러우면서 터프한 미래소년만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편 ‘아워턴’은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